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 고찰 : 질적연구 중심

Facilitators and Barriers of Social Participation of Older Adults: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Studies

이하민*, 박혜연**, 임영명***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초고령사회 뉴노멀 라이프스타일 연구소***

Hamin Lee(haminee98@gmail.com)*, Hae Yean Park(haepark@yonsei.ac.kr)** , Young-Myoung Lim(paulth@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어떠한 영향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촉진 및 저해 요인들에 대한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체계적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인 PubMed, Embase, Cochrane을 사용하여 2012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논문을 검색하였다. 사용된 주요 검색 용어로 'elderly', 'older adults', 'social participation', 'engagement', 'motiv*', 'barrier', 'facilitat*'가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선별된 7개의 논문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은 개인적, 내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 네트워크 요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촉진 요인에는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 흥미, 특정한 사람과의 교류 등이 있었다. 저해 요인은 환경적 접근성, 흥미 없는 활동, 두려움,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능력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었다. 촉진 또는 저해 요소로는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기반시설 접근성 여부, 주위에 지지자 유무, 종교와 민족성 등이 있었다. 고령화의 진행으로 사회적 고립에 취약해진 노인들의 인구들도 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 또는 저해하는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노인 | 사회참여 | 요인 | 촉진요인 | 저해요인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facilitators and barriers to social participation of older adults in the society through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PubMed, Embase, Cochrane, data from 2012 to 2022 were collected. The main search keywords were 'elderly', 'older adults', 'social participation', 'engagement', 'motiv*', 'barrier', 'facilitat*'. 7 articles that satisfy the inclusion criteria were selected for analysis. Facilitators and barriers of older adults' social participation were analyzed. The analyzed factors were assorted into 'personal/ internal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social network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 not only logistical factors, but also motivation, desire, social context of older adults' as factors to social participation. To prevent older adults' social isolation, a broad understanding of what promotes and inhibits the participation of the older adults is needed.

■ keyword : | Older adults | Social participation | Facilitators | Motives | Barriers | Factors |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3A2A02096338).

접수일자 : 2022년 07월 14일

심사완료일 : 2022년 08월 24일

수정일자 : 2022년 08월 23일

교신저자 : 임영명, e-mail : paulth@naver.com

I. 서론

나이가 들수록 사망, 관계 단절, 퇴직, 건강 문제 등 종종 사회적 관계망의 감소로 인해 노인은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대상이다[1].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노인인구 비율은 2.4%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2040년까지의 노인 인구 비율이 7.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2]. 노인 비율이 급증으로, 사회적 고립의 취약성에 노출된 노인들 또한 늘고 있다[3].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은 1960년대부터 거론되어왔지만, 공통으로 합의된 정의는 부족한 실정이다[4]. Aroogh와 Shahboulaghi[5]에 따르면, 사회참여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는 사회 활동에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에 따라 만족감을 느끼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사회참여는 '건강, 정책 등 자신과 지역 사회의 웰빙에 대한 의사 결정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기도 한다[6]. 혹은 사회참여는 자원봉사 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요소가 있는 활동에 참여하여 친구나 그룹과 함께하는 사회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7]. 이처럼 사회참여의 개념은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5].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참여는 사회적, 정서적 웰빙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또한 사회참여는 노년기까지 인지기능을 유지하고[9], [10].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1]. 그리고 사회참여는 신체 활동의 중재자 역할을 하여 신체 건강 위험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1] 허약과 우울 증상 및 노년 자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12-14]. 이렇듯, 노년기에 주기적으로 사회참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과 웰빙, 인지적 이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16]. 이러한 이유로 노인의 사회참여 정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 및 향상하는 접근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Vaughan, LaValley, Alheresh & Keysor[17]의 연구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Ausanee & Duangjai[18]의 연구에서도 노인 친화적 환경 부재를 사회참여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사회참여 요인으로 물리적 환경과 자원의 접근성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사회참여의 질과 빈도를 고려할 때,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으로는 노인의 사회참여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5].

Goll, Charlesworth, Scior과 Stott[19]은 환경적 접근이 아닌 개인적, 내적 측면에서 외로운 노인들의 사회참여 저해 요인을 개인의 두려움에서 찾았다. 이처럼 무엇이 노인의 사회참여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단일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접근은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노인들을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참여를 더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개인적, 내적 측면과 사회적 네트워크 요인 등 다차원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전 선행연구들에서는 내적 요인 혹은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함을 밝혔으나 포괄적인 요인을 알기 어렵다. 이처럼 노인의 사회참여에서 고려되는 포괄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사료되어 사회참여 변화의 촉진과 저해를 탐색할 수 있는 질적 연구를 함성함으로써 근거를 제시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터뷰와 같은 질적연구가 사회참여에 대한 내적인 동기들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라 판단하여 질적연구 중심으로 고찰하게 되었다[20].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개인 및 환경,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작용하는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관련된 내용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를 진행했다.

2. 자료 검색 및 선별

2.1 자료검색

문헌의 검색을 위해 사용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Pubmed, Excerpta Medica database(EMBASE), Cochrane Library이며, 2012년 2월부터 2022년 2월 까지 발표된 문헌자료를 검색하였다. 문헌 검색을 MeSH용어는 (“elderly” OR “older adults”) AND (“social participation” OR “engagement”) AND (motiv* OR barrier* OR facilitat*)를 사용하였다.

2.2 문헌선정 기준

검색된 문헌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1)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질적연구 문헌, (2) 영어로 작성된 문헌, (3)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문헌이 본 고찰 연구에 포함되었다. 배제기준으로 (1)학위논문 혹은 학술대회 발표 자료는 제외하였다. 학위논문, 학회자료집, 연구보고서 등은 출판정보가 나타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문헌을 통칭하는 회색문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21]. (2)이주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으나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노인으로서 겪는 경험보다 이주민으로서 겪는 경험이 특수하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다[22].

2.3 자료 수집 절차

체계적 고찰을 위한 분석 대상 논문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한 결과, 총 3,976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논문 중 중복되는 논문과 학위논문 또는 포스터, 영어로 쓰이지 않은 논문을 제외한 뒤 총 2,423 개의 논문이 남았다. 선별된 논문들의 제목과 초록이 본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지 검토하여 23개의 논문이 남았다. 남은 논문 중 포함 및 배제기준에 따라 총 14 개의 논문이 제외되었다. 5개의 양적연구가 포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제외되었다.

또 포함기준과 제외기준에 따라, 연구대상이 노인이 아닌 논문 4편, 대상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연구 2편, 이민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3편은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총 7편의 논문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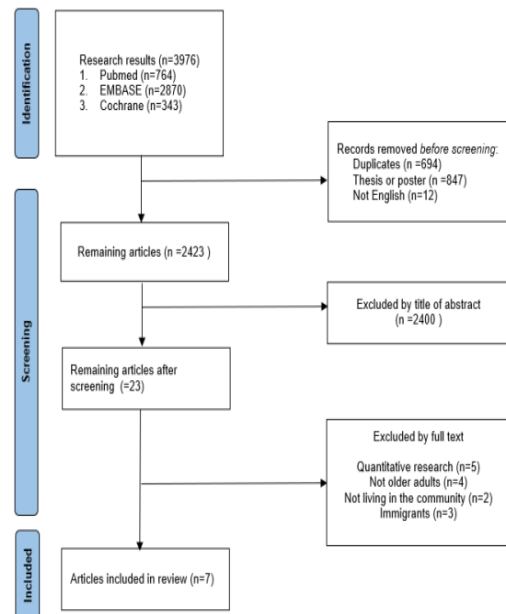


그림 1. PRISMA Flow Diagram

3. 문헌의 질 평가

연구의 질적연구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CASP 질적연구 평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23]. 최종 분석 대상 논문에서 혼합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질적 방법으로 분석된 연구 결과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CASP는 연구에서 사용된 질적연구 방법론, 데이터 수집 방법, 연구 결과 등이 적절한지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CASP는 3개의 영역(연구 결과가 유효한가, 연구결과가 무엇인가, 연구 결과가 도움이 되는가?), 총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점수 척도는 특별히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평가된 각 항목에 대해 “예”(1점), “모르겠다”(0.5점) 또는 “아니오”(0점) 와 같은 정성적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24].

2/3 이상의 “예”를 얻었을 때 문헌의 질을 “높음”으로, 4~6개의 “예”일 때는 “보통”으로, 2/3 이상이 “아니오”인 경우 “낮음”으로 기록되었다[25]. 본 연구에서는 Ricoy-Cano, Obrero-Gaitan, Caravaca-Sanchez 와 Fuente-Robles[26]가 사용한 방법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Table 1]. 그 결과, 7개의 연구의 문헌의 질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표 1. CASP Checklist

CASP Checklist	1 Avet al., 2017	2 Damodar an et al., 2014	3 Köttl et al., 2021	4 Orellano- Colón et al., 2015	5 Rozanov a et al., 2012	6 Pardasa ni., 2018	7 Levasse ur et al., 2020
SECTION A: Are the results valid?							
Was there a clear statement of the aims of the research?	Y	Y	Y	Y	Y	Y	Y
2. Is a qualitative methodology appropriate?	Y	Y	Y	Y	Y	Y	Y
Is it worth continuing?							
3. Was the research design appropriate to address the aims of the research	Y	Y	Y	Y	Y	Y	Y
4. Was the recruitment strategy appropriate to the aims of the research?	Y	Y	Y	Y	Y	Y	Y
5. Was the data collected in a way that addressed the research issue?	Y	Y	Y	Y	Y	Y	Y
6. Has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er and participants been adequately considered?	N	N	C	C	C	N	N
SECTION B: What are the results?							
7. Have ethical issues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Y	Y	Y	Y	N	Y	Y
8. Was the data analysis sufficiently rigorous?	Y	Y	Y	Y	Y	Y	Y
9. Is there a clear statement of findings?	Y	Y	Y	Y	Y	Y	Y
SECTION C: Will the results help locally?							
10. How valuable is the research?	Y	Y	Y	Y	Y	Y	Y
SCORE	9	9	9	9.5	8.5	9	9
Quality of Classification	High	High	High	High	High	High	High

Abbreviations: Y, yes; N, no; C, can't tell

4. 자료 근거 분석 및 제시방법

본 연구에서는 근거 제시 방법으로 SPIDER를 사용하였다. Waddell, Lennox, Apassova와 Bragge(2021)은 정책에서 실무까지 병원에서 의사 결정의 공유를 촉진 또는 방해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SPIDER를 활용하였다[27]. 본 논문의 목적 또한 특정한 현상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고찰이라는 점에서 Waddell et al의 연구와 형식적으로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SPIDER를 근거 제시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정량적 연구에 대한 문헌 근거 제시하는 방법으로 PICO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PICO의 인구(P)와 중재(I) 부분이 질적 연구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기에 PICO를 대체하여 질적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틀로써 SPIDER가 제시되었다[28]. SPIDER의 틀은 대상 샘플(Sample), 관심 현상(Phenomenon of Interest), 디자인(Design), 결과(Evaluation), 연구 종류(Research type)로 제시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을 분석하여 결과에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참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선정된 7개의 논문의 연구 형태와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들을 분류해서 정리했다. 일반적 특성 항목에는 연령, 성비, 교육 수준, 경제적 수준, 인종을 포함하였다[표 2].

2.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포함된 논문에서 언급된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 중에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참여 활동의 종류는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OTPF) 4판[29] 중'Social participation'의 하위 분류기준을 참고하였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사회참여 활동은 Community participation, Family participation, Friendship, Peer group participation으로 분류된다. OTPF 4판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들에서 언급된 활동들을 분류하였다[표 3].

표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o.	Sample N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Design
		Age(mean)	Sex (%) (women)	Education(%)	Economic Status (%)	Ethnicity (%)	
1	109	55 or older	N/A	N/A	N/A	Chinese, Indian, Malay	Qualitative method
2	323	50 or older	49.5%	N/A	N/A	White(80%) Asian(13%) Black(3%) Dual heritage(3%)	Mixed method
3	15	65 or older (79)	66.6%	Post-secondary(66.6%)	N/A	N/A	Qualitative method
4	26	70 or older (80.15*/ 78.9**)	53.8%	Below high school (90*/ 43**) College (2*/ 8**)	below poverty level (92*/86**)	Hispanic	Qualitative method
5	89	60	N/A	N/A	N/A	N/A	Qualitative method
6	172	60 or older	58.1%	Some high school (20.0%) High school diploma (27.4%) College graduate(28.0%) Post graduate(18.9%)	Less than \$10,000(2.3) \$10,001-\$25,000 (33.1) \$25,000-\$50,000(25.6) Above \$50,000(39.0)	N/A	Mixed-method
7	61	65 or older (78)	67.2%	None (3.3%) Elementary school(19.7%) High school(44.3%) College (27.9%) Post graduate(4.9%)	N/A	N/A	Qualitative method

Note. *men **women, Abbreviations: N/A, not available

표 3. Types of Social Participation of Older Adults

Type	Social Participation		
	Specific	N [Article No.]	Activity Type
Community participation	No specific report	1	Religious service
	Church	5	
	No specific report	5, 7	Volunteer work
	Informal help in activities, Leadership role in community	1	
	At senior center: Special event, Registration for event, Facilitating book club, Running discussion group, Offering classes, Teach craft, Leading senior trip, Through the senior center:	6	
	Youth mentoring, After-school tutoring, Youth sports coaching	6	
	Price comparison, Seeking information(hobbies, weather, travel), Health-related advise, Email	2	ICT
Online banking, E-shopping, Email	3		
Family participation	Family meeting, Talking in the phone	1	Socializing
Friendships	Informal social activities (chitchatting in habitual gathering)	4	
Peer group participation	Hobbies with inner circle of people, Organized activities with familiar people	1	Leisure
	Art and craft, Dancing, Watching movie	4	
	Eating, Travel, Games	5	

2.1 종교활동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 중 종교활동을 언급한 두 개의 문헌이 있었다. Aw 등[30]의 문헌은 싱가포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슬람교, 힌두교, 중국 민속종교 등 다양한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Rozanova, Keating과 Eales[31]의 연구에서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한다는 대상자의 인터뷰가 있었다.

2.2 자원봉사

사회참여 활동 중 자원봉사를 거론한 문헌들이 네 편이 있었다. 활동 안에서 도움을 주는 것부터 지역사회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맡음으로써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30]. Pardasani[32]의 연구에서는 노인센터에서 혹은 연계하여 다양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었다.

2.3 사교

사교 영역 안에는 습관처럼 만나는 모임에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족 모임, 통화가 언급되었다.

2.4 레저

레저의 영역 안에는 친밀한 사람들과의 미술, 댄스, 영화 시청, 외식, 여행, 게임 등 다양한 취미 활동들이 있었다.

2.5 ICT(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하여 사회참여 하는 노인들을 연구한 문헌들이 있었다. ICT를 통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있었다. 이 외에도 이메일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본인의 관심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하는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었다.

3.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저해 요인

최근 10년 동안 게재된 연구 중에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총 7편의 연구에서 노인들이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혹은 하지 못하게 하는 저해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Townsen, Chen과 Wuthrich

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요인을 분석한 뒤, 내적/개인적 여역, 환경적 영역, 사회 네트워크 영역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15]. 본 연구는 Townsend et al의 문헌에서 사용된 분류법을 참고하여 분류하였으며 각 영역에 들어가는 내용은 3명의 연구자가 상의하여 분류하였다[Table 4].

3.1 촉진 요인 (Facilitator)

가장 많이 언급된 사회참여 촉진 요인으로는 외로움과 고립을 방지하고자 함 혹은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고 사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30][32][33]. 다음으로 많이 공통으로 언급된 촉진 요인으로는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18][32]. 흥미[32]와 관심을 좇으며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느끼게 하는 '좋은 느낌이 드는 활동[34] 또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거론되었다. 가족 또는 친구와 소통하기 위함[34], 봉사자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함[32]과 같이 특정한 사람과의 교류는 노인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요소였다.

이외에도 남는 시간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 퇴직한 전문 분야를 이어가고 싶은 욕구[32], 활발히 사회참여 하는 습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33], 시민의식[32]도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3.2 저해 요인 (Barriers)

가장 많이 언급된 사회참여 저해 요인으로는 날씨, 물리적 환경, 제한적인 대중교통 접근성, 자원[35]과 참여 기회의 제한[31]이 있었다.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저해 요인으로는 흥미 없는 활동[27], 일처럼 느껴짐[32], 의욕 저하[33]가 있었다. 험담과 갈등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교류의 두려움[30], 봉사 대상자에 대한 두려움[32]과 같은 두려움도 공통으로 언급된 저해 요인이었다. ICT 기술에 대한 지식 부족[34]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부족[31]과 같이 특정 기술에 대한 어려움도 사회참여 저해요인으로 거론되었다. 깊은 돌봄노동의 참여나 강요된 이타주의는 개인이 원하고 다양한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언급되었다[31].

표 4. Motivators and Barriers to Social Participation of Older Adults

No.	Internal/ Individual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Social Network
1	- Religion/ Culture/ Ethnicity, ^B - Desire to give back to community ^F - Prevent loneliness ^F - Financial difficulties ^B		- Fear of gossip, conflict ^B - Fear of social contact (mistrust) ^B
2	- ICT Use ^{F,B} ↳ 'Feel good' activities ^F ↳ Lack of technical knowledge ^B ↳ Physical, Cognitive difficulties ^B		- Communicate with friends/ family ^F
3		- Internalization of Ageism ^B : EICT use - Built environment ^B (women) - Natural environment ^B	
4	- Economic restraint ^B	- Limited Community resources ^B - Limited public transportation ^B	- Reduced social interaction ^B
5	- Range of engagement opportunities available ^B - Socioeconomic status ^{F,B} - Lack of skills to enable sustaining social relationship ^B - Unappealing activities ^B	- Profound Engagement in Care Work(women) ^B - Ageism to paid work ^B	- Compulsory Altruism ^B
6	- Giving back to community ^F - Not quite ready to give up service ^F - Something meaningful to do with free-time ^F - Fun ^F - Reduce isolation ^F - Feels like work ^B - Education ^{F,B} - Income ^{F,B} - Already too busy ^B		- Develop close bond with volunteers ^F - Fulfilment of social contract: to pay forward ^F - Long term commitment ^B - Fear toward recipient of volunteer work ^B
7	- Interest ^{F,B} - Desire to stay socialize ^F - Habit of being socially active ^F - Desire to be involved in the community ^F - Lack of motivation, initiative ^B - Health ^{F,B}	- Availability, accessibility of infrastructure and meeting places ^{F,B} - Distance to resources, recreational facilities and social partners ^{F,B} - Availability and organization of transportation ^{F,B} - Availability of assistance ^M - Availability of activities suited to their needs ^{F,B} - Identification of interests and needs in the area ^F - Sustainability of activities ^{F,B} - Availability of information concerning activities, resources ^{F,B} -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F,B}	- Invitation to activities, solicitation, recruitment process ^{F,B} - Support, presence of family, friend - Availability of volunteers ^{F,B} - Support related to caregiving role - Family habits of meeting, phoning and visiting the older adult ^{F,B}

Note. ^FFacilitator ^BBarrier

또한 경제적 어려움[30][35], 연령차별[31][36], 감소한 사회관계망[35], 장기적인 헌신에 대한 부담감, 이미 바쁜 상황[32] 등의 저해 요인들이 있었다.

교육, 수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면서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31][32]. 사회기반시설, 대중교통,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유용성도 참여를 촉진하면서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또 활동들의 필요 적합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접근성 또한 사회참여를 촉진하면서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33].

3.3 촉진 또는 저해 요소

촉진하면서 동시에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가족 또는 친구, 봉사자, 돌봄자 등으로부터 지지가 있었다. 또 주기적인 가족 모임 또는 활동 모임과 이런 모임으로의 초대도 촉진 혹은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종교 또는 민족성, 관심, 건강, 노인에 대한 태도 등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할지 혹은 저해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IV. 고찰

생물학적 노화 과정에서 점차 쇠약해지는 노년기에 사회참여는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37]. 참여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38]을 고려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서로 다른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목적을 가지는 동기와 저해 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촉진 요인과 어려움 혹은 제한시키는 저해 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체계적 고찰하였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7개의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혹은 70세 이상을 선정기준으로 제시하여 연구참여자의 사회참여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다. 분석 대상 연구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가장 많은 5편(71.42%)의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최근까지 노인의 사회참여가 다뤄지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요인으로 학력, 소득 수준, 소수 인종 등이 보고된 점[39]을 고려할 때, 분석 대상 연구에서 학력을 다룬 연구는 4편, 소득 수준 2편, 소수 인종 3편으로 사회참여와 사회인구학적 요인 간의 다면적 해석을 위한 접근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노인의 사회참여가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연구자들에게 고려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두 요인 간의 관련성이 보고되지 않은 실정으로 명확한 관련성 혹은 영향력 검증에 대한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40].

분석 대상 연구들에 포함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OTPF[29]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 사회참여 항목은 종교활동, 자원봉사, 사교, 레저, ICT 기반 참여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참여는 Aroogh와 Shahboulaghi[5]가 제시한 개인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지역사회 기반 활동과 타인과 대인관계, 자원을 공유하며 적극적인 참여 형태에 대한 개념임을 시사한다. 노인의 사회참여가 적극적이고 다양성을 가질 때 건강한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41], 실제 지역사회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여 수준이 낮아져 건강 문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2]. 이는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적 관점에서 사회참여에 대한 동기 요

인과 저해 요인을 이해하고 다각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사회적 개입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촉진 요인은 개인이 가진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관심사에 대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ICT, 친구와 가족 간의 소통, 타인과 유대감 형성, 사회 일원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개인적 욕구가 참여를 촉진하고 있었다. 이는 노인의 사회참여가 생산적이거나 혹은 커뮤니티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사회참여가 개인의 참여 의지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43]. 개인 의지에 기반한 사회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다른 참여 형태와 연관되어 참여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44], 노인이 가진 의지와 의욕을 기반으로 사회참여의 다차원성을 확장해가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참여 저해 요인들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으며, 개인 및 환경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5]. 본 연구에서의 저해 요인은 더 다양하고 복잡한 실정으로 통일되지 않은 맥락을 가지고 있었다. 분석 대상 연구에서 사회참여는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험담과 같은 문제, 연령 차별에 대한 내면화 그리고 조직 및 사회에서 갖는 이타주의, 의욕 저하, 참여 형태에 따른 경제 및 시간 사용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저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저해 요인은 개인 내면과 환경, 사회적 요인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노년기에 겪는 다양한 저해 요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일상이 유지되지 않은 채 사회참여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46].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노인의 심리사회적 측면과 사회적 기술에 접근하며, 사회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종교, 이민, 사회경제적 수준, 다양한 문화적 맥락 등에 대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상태와 관심 및 흥미, 태도 정도에 따라 촉진 혹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사회경제적 상황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의 사회참여를 늘려 건강을 증진하려는 목표를 위해서는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47].

지역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및 인적 자원 여부 또한 촉진 혹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참여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한 Lee[48] 등의 결과와도 유사한 측면을 보였다. 이처럼 사회참여는 복잡한 인과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노인의 다차원성을 실증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및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 적절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때보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건강한 노화가 가능해질 것이다[49].

노인의 사회참여는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건강 증진을 위해 적절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을 권장하고 있다[50].

사회참여가 건강한 노화에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노인에서 사회참여에 대한 계량화한 연구 결과가 아닌 현상학적 방법으로 주관적 경험과 해석을 강조한 연구의 체계적 고찰을 통해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을 고찰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연구 결과로 노인의 활동 증진 측면에서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 의욕, 가치가 반영되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형성되는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건강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참여에 대한 촉진 요인 혹은 저해 요인에 대한 증재를 시도함으로써 관련된 요인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관련 요인들에서 영향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서 다차원성을 가진 사회참여에 대한 개별화된 증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참여가 감소한 노인들이 증가하며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노인들의 인구도 늘고 있다. 사회참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인지, 삶의 질, 우울 등과 같은 건강과 웰빙에 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정하게 사회참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체계적 고찰은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 또는 저해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들에서 밝혀왔듯이 교통, 자원, 공간 등과 같은 기반시설의 접근성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중요한 부분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반시설의 접근성을 비롯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 종교, 건강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과 이타심, 흥미와 같은 내적 요인들도 사회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연령차별, 특정 성별에 부과된 돌봄노동과 같은 사회적 맥락과 기존에 맺고 있는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정서들에 의해서도 노인의 사회참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는 복잡한 인과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참여에 대한 요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질 때 노인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노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 [1] A. P. Bath and D. Deeg, "Social engagement and health outcomes among older people: introduction to a special section," *European journal of ageing*, Vol.2, No.1, pp.24-30, 2005.
- [2]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Ageing 2013*, New York, NY: United Nations, 2013.

- [3] T. Nordin, R. Lena, and N. Ingeborg, "Personhood in aloneness and in affinity: satisfactory social participation among home care recipients,"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29, No.7, pp.1-15, 2020.
- [4] B. Piskur, R. Daniels, M. J. Jongmans, M Ketelaar, R. J. Smeets, M. Norton, and A. J. Beurskens, "Particip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are they distinct concepts?," *Clinical rehabilitation*, Vol.28, No.3, pp.211-220, 2014.
- [5] M. D. Aroogh and M. F. Farahnaz, "Social participation of older adults: A concep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based nursing and midwifery*, Vol.8, No.1, p.55, 2020.
- [6] T. Bathgate and P. Romios, *Consumer participation in health: Understanding consumers as social participants*, Institute for Social Participation Seminar Series, 2011.
- [7] L. O. Bygren, B. B. Konlaan, and S. E. Johansson, "Attendance at cultural events, reading books or periodicals, and making music or singing in a choir as determinants for survival: Swedish interview survey of living conditions," *BMJ*, Vol.313 No.7072, pp.1577-1580, 1996.
- [8] Mikkelsen, A. S. Bech, A. S. B. Mikkelsen, S. Petersen, A. C. Dragsted, and M. Kristiansen, "Social interventions targeting social relations among older people at nursing homes: a qualitative synthesized systematic review," *INQUIRY: The Journal of Health Care Organization, Provision, and Financing*, Vol.56, pp.1-16, 2019.
- [9] M. Anatürk, N. Demnitz, K. P. Ebmeier, and C. E. Sext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structur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studies investigating cognitive and social activity levels in older adults,"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Vol.93, pp.71-84, 2018.
- [10] M. E. Kelly, H. Duff, S. Kelly, J. E. McHugh Power, S. Brennan, B. A. Lawlor, and D. G. Loughrey, "The impact of social activities,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social relationships on the cognitive functioning of healthy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Systematic reviews*, Vol.6, No.1, pp.1-18, 2017.
- [11] X. Huang, L. Jinyu, and B. Ai, "Living arrangements an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in China: does social cohesion matter?," *Aging & Mental Health*, Vol.24, No.12, pp.2053-2062, 2020.
- [12] Q. Chang, C. H. Chan, and S. F. Y. Paul, "A meta-analytic review on social relationship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older adult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191, pp.65-76, 2017.
- [13] M. C. Christina, C. Matz-Costa, D. C. Carr, T. K. McNamara, J. B. James, "Physical, cognitive, social, and emotional mediators of activity involvement and health in later life." *Research on Aging*, Vol.38, No.7. pp.791-815, 2016.
- [14] 이승현, 이규호, "사회참여영역과 성별에 따른 독거노인의 우울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12호, pp.607-620, 2021.
- [15] T. send, G. Braedon, T. H. Jessamine, and V. M. Wuthrich,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social participation in older adult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Clinical gerontologist*, Vol. 44, No.4, pp.359-380, 2021.
- [16] 신상예, 이은숙, "독거 중고령자의 사회참여, 인지기능, 우울의 관계 및 인지기능 수준에 따른 집단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2권, 제3호, pp.529-537, 2022.
- [17] D. son, G. S. Jacob, and M. G. Dawn, "Older adults with a combination of vision and hearing impairment experience higher rates of cognitive impairment, functional dependence, and worse outcomes across a set of quality indicator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Vol.31, No.1, pp.85-108, 2019.
- [18] A. Wanchai and P. Duangjai, "A systematic review of factors influencing social participation of older adults," *Pacific Rim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Research*, Vol.23, No.2, pp.131-141, 2019.
- [19] J. C. Goll, G Charlesworth, K. Scior, and J. Stott, "Barriers to social participation among lonely older adults: The influence of social fears and identity," *PloS one*, Vol.10, No.2, p.e0116664, 2015.
- [20] N. C. Campbell and E. Murray, "Darbyshire,

- Designing and evaluating complex interventions to improve health care,” *British Medical Journal*, Vol.334, pp.455-459, 2017.
- [21] W. J. Shin,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의 개요,” *Hanyang Medical Reviews*, Vol.35, No.1, 2015.
- [22] J. Treas and S. Mazumdar, “Older people in America’s immigrant families: Dilemmas of dependence, integration, and isolation,” *Journal of Aging Studies*, Vol.16, No.3, pp.243-258, 2002.
- [23] <https://www.unisa.edu.au/contentassets/72bf75606a2b4abcaf7f17404af374ad/7a-casp-qualitative-cat.pdf>. Accessed: 22.04.21
- [24] A. Butler, H. Hall, and B. Copnell, “A guide to writing a qualitative systematic review protocol to enhance evidence-based practice in nursing and health care,” *Worldviews on Evidence-Based Nursing*, Vol.13, No.3, pp.241-249, 2016.
- [25] B. M. Fullen, G. D. Baxter, B. G. G. O’Donovan, C. Doody, L. E. Daly, and D. A. Hurley, “Factors impacting on doctors’ management of acute low back pain: a systematic review,” *European Journal of Pain*, Vol.13, No.9, pp.908-914, 2009.
- [26] R. Cano, A. Jesus, E. O. Gaitan, and F. C. Sanchez. “Factors conditioning sexual behavior in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studies,”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Vol.9, No.6, p.1716, 2020.
- [27] A. Waddell, A. Lennox, G. Spassova, and P. Bragge,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shared decision-making in hospitals from policy to practice: a systematic review,” *Implementation Science*, Vol.16, No.1, pp.1-23, 2021.
- [28] A. Cooke, D. Smith, and A. Booth, “Beyond PICO: the SPIDER tool for qualitative evidence synthe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22, No.10, pp.1435-1443, 2012.
- [29]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Et Process*, 2020.
- [30] S. Aw, G. Koh, Y. J. Oh, M. L. Wong, H. J. M. Vrijhoef, S. C. Harding, M. A. B. Geronimo, C. Y. F. Lai, and Z. J. L. Hildon, “Explaining the continuum of social participation among older adults in Singapore: from ‘closed doors’ to active ageing in multi-ethnic community settings,” *Journal of aging studies*, Vol.42, pp.46-55, 2017.
- [31] J. Rozanova, N. Keating, and J. Eales, “Unequal social engagement for older adults: constraints on choice,” *Canadian Journal on Aging/La Revue canadienne du vieillissement*, Vol.31, No.1, pp.25-36, 2017.
- [32] M. Pardasani, “Motivation to volunteer among senior center participant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Vol.61, No.3, pp.313-333, 2018.
- [33] M. Levasseur, S. Routhier, I. Clapperton, C. Dore, and F. Gallagher, “Social participation needs of older adults living in a rural regional county municipality: Toward reducing situations of isolation and vulnerability,” *BMC geriatrics*, Vol.20, No.1, pp.1-12, 2020.
- [34] L. Damodaran, C. W. Olphert, and J. Sandhu. “Falling off the bandwagon? Exploring the challenges to sustained digital engagement by older people,” *Gerontology*, Vol.60, No.2, pp.163-173, 2014.
- [35] E. M. Orellano-Colon, G. A. Mountain, M. Rosario, Z. M. Colon, S. Acevedo, and J. Tirado, “Environmental restrictors to occupational participation in old age: exploring differences across gender in Puerto Rico,”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12, No.9, pp.11288-11303, 2015.
- [36] H. Kottl, V. Gallistl, R. Rohner, and L. Ayalon, “‘But at the age of 85? Forget it!’: Internalized ageism, a barrier to technology use,” *Journal of Aging Studies*, Vol.59, p.100971, 2021.
- [37] A. Wanchai and P. Duangjai, “Social participation types and benefits on health outcomes for elder people: A systematic review,” *Ageing International*, Vol.44, No.3, pp.223-233, 2019.
- [38]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Geneva, Switzerland: WHO, 2001
- [39] W. M. Levack, “Ethics in goal planning for rehabilitation: a utilitarian perspective,” *Clinical Rehabilitation*, Vol.23, No.4, pp.345-351, 2009.

[40] A. Wanchai and P. Duangjai, "A systematic review of factors influencing social participation of older adults," Pacific Rim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Research, Vol.23, No.2, pp.131-141, 2019.

[41] J. Holt-Lunstad, T. B. Smith, M. Baker, T. Harris, and D. Stephenson,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mortality: a meta-analytic review,"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Vol.10, No.2, pp.227-237, 2015.

[42] N. Curvers, N. Curvers, M. Pavlova, K. J. Hajema, and W. Groot, "Social participation among older adults (55+): Results of a survey in the region of South Limburg in the Netherlands,"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Vol.26, No.1, pp.e85-e93, 2018.

[43] M. Levasseur, L. Richard, L. Gauvin, and E. Raymond, "Inventory and analysis of definitions of social participation found in the aging literature: Proposed taxonomy of social activitie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71, No.12, pp.2141-2149, 2010.

[44] H. Douglas, G. Andrew, and W. Johanna, "Social participation as an indicator of successful aging: an overview of concept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health," Australian Health Review, Vol.41, No.4, pp.455-462, 2016.

[45] J. Fuchs, C. Scheidt-Nave, T. Hinrichs, A. Mergenthaler, J. Stein, S. G. Riedel-Heller, and E. Grill, "Indicators for healthy ageing—a debat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10, No.12, pp.6630-6644, 2013.

[46] A. Y. M. Leung, M. Alex, and A. C. Diomedes, "A Challenge to Healthy Aging: Limited Social Participation in Old Age," Aging and disease, Vol.12, No.7, pp.1536, 2021.

[47] 이주미, 김태완. "노인빈곤 원인에 대한 고찰: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Vol.40, No.2, pp.193-221, 2020.

[48] H. Y. Lee, S. N. Jang, S. Lee, S. I. Cho, and E. O.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nd self-rated health by sex and age: A cross-sectional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45, No.7, pp.1042-1054, 2008.

[49] M. Luo, D. Ding, A. Bauman, J. Negin, and P. Phongsavan, "Social engagement pattern, health behaviors and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dult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using WHO-SAGE survey data," BMC Public Health, Vol.20, No.1, pp.1-10, 2020.

[50] A. Sowa, B. Tobiasz-Adamczyk, R. Topor-Madry, A. Poscia, and D. I. La Milla, "Predictors of healthy ageing: public health policy targets,"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Vol.16, No.5, pp.441-453, 2016.

저 자 소 개

이 하 민(Hamin Lee)

정회원



■ 2022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석사과정)

〈관심분야〉 : 작업치료, 지역사회, 노인,

박 혜 연(Hae Yean Park)

정회원



■ 2011년 6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이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 작업치료, 아동, 지역사회, 메타분석, 운전재활

임 영 명(Young-Myoung Lim)

정회원



- 2017년 2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작업치료학 석사)
- 2020년 8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이학박사)
- 2021년 10월 ~ 현재 : 초고령사회 뉴노멀 라이프스타일 연구소

〈관심분야〉 : 뇌졸중 재활, 작업치료, 지역사회, 보조공학